

## 유기농장 운영사례

정 천 근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청일주말농장

---

저희 청일주말농원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518-1번지”의 운악산 산자락 아래 위치한 강원도의 전형적인 산골마을에 있다. 해발 370~4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의 남쪽에는 큰 산이 있고 북쪽 방향으로 농지가 자리잡고 있으며, 농장과 일반 개인농지와는 하천을 경계로 14,000평의 농지가 한자리에 모여있는 곳이다.

1986년 산을 구입하여 개간을 시작한지 10년 동안 청일면 소재지에서 다니면서 농사를 짓다가 1996년 집과 식당을 짓고 속실리로 이사를 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인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1970년대 횡성군 지역의 호프재배 때 과도한 농약의 살포로 한달 정도 몸에 농약중독 증세가 있어서 모든 농사방법을 새로이 바꾸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부친 밑에서 농사를 배울 때에도 퇴비를 많이 시비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며 자랐다. 1980년대 말의 유기농업은 지금에 비하면 정부의 지원이나 재배기술, 자재 모두가 형편없이 부족하여 힘겹게 꾸려나갈 때이다.

저희 농장도 많은 평수를 유기농업으로 하다보니 한쪽에서는 잘 자라지 않고, 한

쪽에서는 손이 모자라 망가지는 농작물도 있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의 문제며, 무리한 유기농업의 운영에서 착오를 많이 겪었다. 한 때는 2년간 2,000~3,000평씩 재배한 고추를 한번 수확하고 버려야 했고,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문제로 많은 량의 농산물이 썩어 나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 7~8년 정도가 소요되었고, 시장판매를 하다보니 너무 낮은 농산물 가격 때문에, 소비처로 직접 농산물을 싣고 찾아다니면서 판매를 시작하였다. 소비지에 살고있는 친척은 모두 동원하였고, 소비가 자리잡기까지는 3년 정도가 걸렸다. 이후부터는 생산시기를 기다리는 소비자가 어느 정도 생겼다. 이제부터는 소비자가 생산지를 직접 찾아오게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 꾸준히 추진하여 왔고, 유기농산물 판매장을 찾아 납품을 시작하여 판로문제는 많이 해결되었다.

속실리에 이사오면서부터 식당운영에 필요한 농산물은 농장에서 생산된 유기농산물을 직접, 이용하여 식당운영을 하였다. 유기농산물 생산현장과 맛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맛과 품질을 평가하는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다. 현지 농산물의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였지만, 생산과정에서는 하루도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었다.

모든 농사의 초점을 땅 살리기에 두었다. 퇴비를 찾아서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많은 량의 퇴비를 농장의 땅에 넣은 결과, 오늘의 좋은 땅이 만들어졌다. 주재료는 농장의 닭똥, 오리거름, 톱밥, 왕겨, 쌀겨, 깻묵, 돈분, 우분 등 혼합발효 퇴비와 쌀겨, 깻묵, 골분, 숯가루, 목초액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가 농사에 사용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유기농산물 자재구입이 좋은 편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퇴비 모으기에 주력하여 퇴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였다.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청초액비, 자기시체액비 등에 깻묵, 쌀겨, 골분 등을 이용하여 엽면시비와 관수용으로 사용하였다.

농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땅을 살리는데 있으며, 땅이 살아나면 농사의 80~

90%는 해결된다고 생각된다.

유기농업의 시작은 땅을 먼저 살리는 우선되어야 하고, 짧은 기간 동안의 무리하게 많은 량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다고 생각한다.

적은 면적부터 조금씩 순서대로 실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농사가 끝나는 즉시 부산물을 거두어 발효시켜 다시 제자리에 넣고, 벼짚과 쌀겨를 살포한 후 갈아넣고 월동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특히 시설하우스에는 필히 실천하여 왔다.

현재 농장의 현황은 톱밥창고, 기계, 운반차량, 포크레인, 액비발효탱크(200톤) 지원 시설하우스 2,200평, 퇴비창고 등이 있어, 유기농업의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로서, 잘 활용하면 많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면 생산비는 많이 줄어들고 생산되는 농산물도 안정적인 수량이 보장된다. 하우스에서는 건고추와 표고를 재배하고 있으며, 나머지 여러 작물은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다.

오늘 이렇게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농사를 꼭 지으시기 바라며,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한다. 감사합니다.